

순수한 매력의 나라, 라오스(2)

채 종 일 · 서울의대 기생충학 교수

타이간흡충 유행지 남궁댐 (Nam Ngung Dam)의 견학

다 음날 아침 일찍 IMPE (Institut of Malariology, Parasitology, and Entomology)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라오스 사람들의 엉성한 시간 관념에는 약간 놀라고 말았다. 약속시간보다 30분이 지나서야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우리쪽 여행가이드가 가져 온 차량 1대와 IMPE에서 제공한 차량 1대에 나누어 탄 우리는 3시간이 넘어서야 Nam Ngung Dam 북쪽에 있는 타이간흡충의 농후 유행지인 한 마을(물고기 파는 시장이 있는...)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남궁댐은 약 20년 전에 수도인 브엔트얀 북쪽 약 150~180km 지점에 만들어졌는데 메콩강에서 많은 물고기가 이입되어 지금은 수력발전, 홍수조절 외에도 물고기 천국이라 할 만큼 풍부한 어장으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나는 물고기는 주변 마을에서 향토 음식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었는데 자그마한 한 마을이 우리 노랑진 시장처럼 온통 생선가게로 구성되어 있었다.

길이가 1m가 넘는 메기 모양의 큰 생선에서부터 송사리 같은 작은 생선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민물고기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물고기를 먹는 방식은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생선회로 먹는 것이 아니고 갖가지 양념에 섞어 만든 “플라라(Pla-la)”나 “플라솜(Pla-som)” 같은 형태로 먹는다.

이 음식들은 우리나라의 생선 젓갈 비슷한 것들인데, 신선한 것들은 근육을 거의 날로 먹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다만 오랫동안 담근 것들은 타이간흡충의 유충이 사멸될 수 있다.

그런데도 어떠한 조건에서 유충이 사멸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동행한 베트남의 Dr. Son Quoc Tran 박사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연구하겠다고

다짐해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댐 근처로 이동하여 점심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플라솜” 만드는 과정을 견학할 수 있었다. 생선을 끓는 물에 넣어 익혀서 먹었더니 그래도 대단히 맛이 좋았다.

그렇지만 생선을 날로 넣어 먹으면 더욱 맛이 좋다고 한다. 맛과 기생충 감염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라오스식 사우나에서 재미 있는 광경이...

저녁 무렵에는 모두들 녹초가 되어 피로도 풀 겸 라오스식 사우나를 가 보기로 하였다.

라오스식 사우나에는 우리나라 처럼 공동탕(큰 욕조)은 없었고, 매우 엉성한 탈의실 2개와 5~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우나방 3개, 샤워실 2개가 전부였다.

전혀 예기치 않았다가 깜짝 놀랐던 것은 자그마한 탈의실에 들어가니 전라에 목욕타올 하나만 걸친 여자 한 두 명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필자는 스스로의 몸을 움츠리고 몸을 가리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아랫 쪽에는 아직 옷을 입은 채였다. 순간적으로 “아하, 남녀 공용이구나.” 알아차리고는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 일행 중 남국장님이 또 한 번 당황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작은 사우나 방에는 긴의자 둘이 놓여 있고 매우 협소하였는데, “Men”이라고 써 있는 사우나 방으로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던 남국장님이 깜짝 놀라며 다시 뛰쳐나오는게 아닌가?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더니 “저 안에 아가씨 하나가 누워 있어서...”라고 하며 얼굴을 붉히시는게 아닌가?

우리 일행은 폭소를 금치 못하였다. 한바탕 웃은 우리는 아무런 글도 써 있지 않은 옆 사우나 방으로 들어가 땀을 낸 후 한 사람씩 샤워실로 들어갔다.

샤워실도 남, 여가 따로 없었다. 필자가 들어가려고 문을 연 샤워실도 마침 한 여자가 사용 중이었다. “앗”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음은 물론이다.



▲ 라오스 기생충병 연구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필자의 생각으로는 라오스에는 “남녀 칠세 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우나방에 남녀가 함께 들어가 서로 쳐다보게 되어도, 자신의 샤워 광경을 이성에게 목격당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아가씨는 “Men”이건 “Women”이건 가리지 않고 들어갔던 것이고, 공연히 놀란 우리만 모두들 그녀를 피해 옆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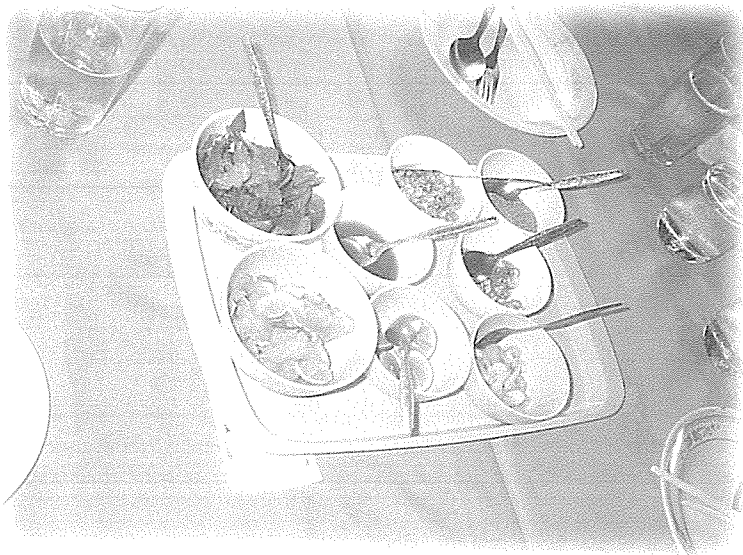
그렇긴 했지만 아무래도 필자는 타올 한 장으로 가린 몸이 땀도 나고 하여 무심코 열어 젖혀지면 어쩌나 조바심을 하였고, 사우나방으로 여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어쨌거나 샤워를 끝내고 좁은 복도로 나오니 거기에

도 타올만 걸치고 허벅지까지 아슬아슬하게 드러낸 여자 2~3명이 사우나방으로 들어가려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필자는 또 한번 민망하여 몸을 움츠렸고, 몸에 감은 타올이 흘러내릴까 단단히 쥐고는 그 옆을 쏘살같이 걸어 나왔다.

경유지인 태국 방콕에서의 하루

라오스에서 여러 가지 흐뭇한 기억을 뒤로 하고 일행은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이 있는 방콕으로 출발하였다. 브ენტ얀에서 방콕까지 1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아 정오가 되기 전에 공항 대합실로 나왔는데 서울행 비행기는 밤 12시가 넘는 새벽 1시 30분경에야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 간흡충 감염원인 생선을 생식하는 라오스 사람들의 식탁

무려 13시간 가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다행히 방콕에서도 현지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대 중, 후반으로 보이는 미모의 젊은 여성 가이드였다. 그는 또한 툭툭 튀는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우선 점심을 큰 쇼핑몰센터 지하로 가서 그 가이드의 방식대로(셀프 서비스에 젊은이 취향의 음식으로) 간단히 해결하였다.

그 때부터 어디를 갈 것인가를 놓고 다소 문제가 생겼다. 그 가이드는 에메랄드 사원, 수상가옥, 한국손님 쇼핑몰 등등 나름대로 방콕 관광의 교과서적인 스케줄을 잡아놓고 우리를 안내하려 하였다.

그런데 난감하게도 우리

일행 모두가 그 곳들을 이미 다 방문한 적이 있어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었고, 다시 가야 할 필요도 없었다. 쇼핑몰센터도 굳이 가야 할 이유가 없었다.

가이드는 일정이 모두 엉망이 되자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짙고 튀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오히려 우리가 민망하고 불편하였고, 고객이 뒤편 느낌까지 들었다.

한참을 설득한 끝에 일행은 그 가이드를 잘 달래어 일정을 지혜롭게 바꾸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쇼핑몰센터 방문은 하도록 할테니 에메랄드 사원 대신 다른 곳으로 스케줄을 바꿔보라고 설득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태국인이 운영하는

“Gems Gallery”라는 보석-기념품 센터와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념품점을 둘러 기념품을 좀 사 주었고, 그런 후에야 가이드는 백화점과 거리 등을 두루 구경시켜 주었다.

에필로그

이번 여행은 베트남과 라오스의 기생충 현황 답사와 관리사업에 관한 협조체계 구축이라는 목적 달성

이외에도 두 나라의 역사, 환경, 문물, 생활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등 여러 측면에서 두 나라를 좀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점에 대해 두고두고 흐뭇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또한, 여행 중 겪은 갖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여행의 피로를 반감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다만, 필자가 귀국 후에 심한 몸살을 하게 되었는데, 베트남에서 걸린 말라리아나 회충, 구충의 폐순환에 따른 폐염 증세가 아닌가 걱정하였으나 그 후 모든 증세가 없어진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지내다가 공해와 오염으로 찌든 서울로 돌아온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72